

“올 여름 피서는 청정 고성에서”

고성군 26개 해변 7월 15일 일제히 개장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름날의 추억 선사

지역 경기 활성화의 피크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화진포 등 26개 해변이 이달 15일부터 내달 21일까지 38일간 운영에 들어간다.

고성군은 3억여원을 들여 해변 샤워장 신축과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15일 올 여름 해변을 일제히 개장한다.

군은 올해 해변 개장기간 동안 화진포, 송지호, 봉수대, 오토캠핑장 등 4개 시범해변과 삼포, 백도 등 2개 일반 해변, 천진 등 20개 마을관리 해변을 운영한다.

고성군의 대표적 해변인 화진포에서는 7월 23일부터 관광객

노래자랑, 초대가수 및 통기타 공연, 국악공연, 활어 맨손잡기, 물속씨름, 불꽃놀이 등이 열려 관광객들에게 여름날의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특히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에는 제3회 화진포가요제 및 해변 노래자랑과 비치발리볼 경기를 개최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또 한림대학교 체육학부에서 지원하는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카누 교실이 열려 교육 수수료 후 자격증 취득의 기회도 마련된다.

봉수대에서는 오토캠핑장, 활어맨손잡기 체험, 바다레프팅 등의 행사가 열린다.

그밖의 주요 해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각종 체험 행사와 노래자랑 등을 유치해 관광객을 맞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 해변 개장식은 오는 15일 화진포 해변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 해변 운영관계자 및 운영요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화진포 해수욕장을 위탁운영하는 현내면변영회 이명철 회장은 “막바지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해 보다 많은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 여름은 화진포의 푸른 파도와 아름다운 백사장 배경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고성지역 해변이 15일 일제히 개장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화진포에서 해변 가로등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멀리 화진포의 생김일성 별장이 보이는 해변에서 성급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축산보조금 허위 교부 적발

고성경찰서, 공무원 4명 · 축산업자 2명 불구속 입건

공중보건의사 보철 치료비 횡령도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고성군청 농정산립과 A과장(54세), B 축산지원팀장(52세), C 농산지원팀장(50세), D 축산지원팀 직원(38세) 등 공무원 4명과 축산업자 E씨(37세) 등 2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축산업자 E씨 등 2명에게 총 4회에 걸쳐 축산 관련 보조금 4억여원을 교부한 혐의다.

경찰이 밝힌 구체적인 사례는 2008년 축산 신축에 관한 보조금 7천여만원, 2009년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9천만원, 2010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 관련 2억4천

만원 등 총 4억여원이다. E씨가 3억5천여만원, 다른 1명이 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경찰은 특히 E씨가 이렇게 받은 보조금 가운데 4천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했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트랙터 등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씨의 경우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이 한 번 이상의 보조금을 받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최근 3년간 총 8회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때, E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공무원 D씨는 “8건 가운데 2건은 업무상 실수를 인정하지만, 6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업자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적은 결코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고성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김모씨(치과)가 지난 2008년 4월 24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보건소를 찾은 주민 22명을 상대로 보철 치료를 해주고 총 975만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상 공중보건의사는 치료목적상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 즉시 고성군에 수입조치를 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

최광호 기자

알림

구독료 납부 본인 이름으로

지난 1월 31일 ‘행복한 고성 만들기’라는 창간 이념을 내걸고 첫 선을 보인 고성신문이 어느덧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고성신문은 독자님들께서 내주시는 소중한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성을 사랑 하는 독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장으로 구독료를 입금하실 때는 구독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신 경우는 납부 확인이 어려우니, 입금 후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는 고성신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식회사 고성신문

☎033-681-1667